

도,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 가동

변산·선유도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14개소 대상... 피서지별 청소인력·장비확충 등 비상 청소체계 구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14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대책을 8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라북도도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9 이후 해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피서지별 청소인력 및 장비확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약 40% 확대 설치' 등과 쓰레기 무단 투기·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피서객 대상 현지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한, 쓰레기 적체, 투기 등의 민

원 대응을 위한 '상황반'과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동 청소반'을 시군별로 편성·운영해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도는 시군과 함께 8월 초까지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쓰레기 분리배출한 적정 비치 여부, 수거실태 및 쓰레기 적치 상황, 취약지역 파악, 홍보 및 지도·단속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 조치해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유회숙 환경복지국장은 "우리 전부를 찾는 피서객에게 전체의 자연환경과 함께 정결한 전북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도, 화랑훈련 개시

김관영 지사, "통합방위 주체 준비된 작전 펼칠 수 있는 철저한 방위태세 필요"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5일 2022년 제3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군·경이 함께 화랑훈련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제3차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인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포함한 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보병사단 전북경찰청의 2022년 화랑훈련 군·경 작전상황 보고와 통합방위 '울릉시대' 안건 심의·선포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화랑훈련에 따른 훈련상황 중 이날 오전, 도내 일원에서 적의 침투 도발 행위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35사단, 전북 경찰청이 긴급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회의 중 군경 보고 등에서 우리 지역의 지안과 안보상태가 불안한 상태로 판단돼 통합방위협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통합방위 울릉시대 선포 건의를 했고, 이에 이날 오후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5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2022년 화랑훈련 군·경 작전상황 보고와 통합방위 '울릉시대' 안건 심의·선포를 진행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번 화랑훈련을 통해 우리 지역에 예상치 못한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통합방위 주체가 준비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철저한 방위태세가 필요하다"며 화랑훈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화랑훈련은 전·평시 통합방위

작전 수립 및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번 화랑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4년 만에 실시하게 된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 KOICA와 몽골에 전라북도 스마트팜 선진 기술 전수

KOICA글로벌연수 정부부처 제안사업 시행기관 선정·2024년까지 몽골 공무원 대상, 스마트팜 기술 전수 연수

전북도국제교류센터가 KOICA와 함께 몽골 고비알타이주 농업 기술 선진화(스마트팜 기술)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8월 1일부터 9일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몽골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 2030과 헬스푸드 몽골2025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의 스마트팜 관련 경험과 우수사례

를 공유하는 연수 과정을 마련했다.

연수 교육 과정에는 전라북도의 농업기술 유관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전북의 선진 농업기술을 몽골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올해는 몽골 고비알타이주 식품농업부 공무원 20여 명이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올해는 연수생과 전라북도 농업 전문가와 함께 몽골 농업 환경을 분석하

고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편성하여 연수 종료 이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몽골 농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이 몽골 농업 분야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몽골의 농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한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부터 3년 간 해당 연수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센터는 해당 연수사업을 기반으로 도내 농업기술 유관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전북의 농업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ODA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성평등 문화 확산 '기대'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팔레트·질문이 시작된다' 교육생 모집 청년성평등 문화학교 내달부터 미디어리터시 교육 운영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거점형 양성평등센터(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청년층의 성평등 가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미디어 리터시 교육 '팔레트:질문이 시작된다'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팔레트:질문이 시작된다'는 청년층에 친숙한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이해 및 통찰 제고를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리터시 교육은 전주는 8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남원은 남원시 청년센터 청년 마루와 공동주관으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8회 차 교육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군산, 완주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블로그(blog.naver.com/jb_genderequalit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전화(063-280-7207)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은 "청년 성평등 문화학교 '팔레트:질문이 시작된다'는 성평등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질의 교육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개소한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는 전북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성주주화 제도 지원,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지역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도, 이시카와현과 청소년 교류의 장 마련

양 지역 전문문화 강연·토론·일상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일본 이시카와현 청소년들이 24일 비대면으로 교류하며, 양 지역 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서로의 문화와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지역은 2001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교류 20주년을 맞았으며, 행정,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교류는 양 지역 교류 첫해부터 매년 추진됐으며, 홈스테이, 학교교류, 문화체험 등 다른 문화권의 또래 청소년과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양 지역 청소년 22명이 참가했다.

먼저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의 전통 문화를 공에 키토로 체험했다. 이어서 지역 관광지와 문화, 일상, 취미활동, 유행하는 또래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 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프로그램은 이시카와현의 금

박공예체험, 전북의 한복 열쇠고리 만들기 등의 구성으로 이뤄졌다.

참여 청소년들은 지역의 소개하고 싶은 문화와 장소, 관광지·드라마·음악·연예인 등 유행하는 문화, 내방·내 가방·나의 하루·잡담·소중함 물건 등 일상을 공유했다.

특히, 일본 청소년 사이에서는 BTS, 블랙핑크 등 케이팝 아이돌이,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포켓몬방이 인기를 끄는 점을 서로가 알게 됐으며, 이미 일상 속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의 문화를 발견해가면서 양 지역 청소년은 서로 친숙함을 느끼고 공감대를 쌓았다.

김영민 국제협력과장은 "직접 교류 활동이 아지는 조심스러운 시기이나 전북도는 이시카와현과 점진적인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상호교류 20주년이 넘어가면서 양 지역 관계가 성숙기에 놓여있는 만큼 이시카와현과 교류 분야 다양화 등 더욱 강화된 교류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배민복합점
- 한국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제3대학원 및 기관, 단지 특강 인기 강사
- KBS 1TV 아침나눔, MBC 1TV, 11TV, 11TV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사립대학교 · 송정리서사 · 심리상담사
- 게시 "665 스승의날이 케이션", "나쁜 배운. 보. 보."
-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계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분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예방지능이회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